

베트남 거주 한·베가정 자녀 대상 병역체험 프로그램 실시

-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7월 23일(목) 베트남 거주 한·베가정 자녀 대상으로 대전·충남지방병무청과 제37보병사단(충북 증평)에서 「병역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 이번 행사는 병무청이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재외국민 병역이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외거주 병역의무자들이 대한민국의 병역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병역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경상북도·봉화군·경북연구원·(사)유엔인권정책센터가 공동 추진하는 「베트남 한·베가정 자녀 초청 한국문화 체험행사」(7.12~7.31) 기간 중 병무청이 주관하는 병역체험 프로그램으로, 한·베가정 자녀와 인솔자 등 20여 명이 참가하였다.
- 참가자 대부분이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 일정에 통역사를 배치하고, 병역제도와 병역이행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병역의무대상자와 일반참가자를 구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 특히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인 2007년생 참가자 3명은 대전·충남지방 병무청에서 실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며 병역이행의 첫 관문을 직접 체험하였다.
- 일반참가자들은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방문해 직업선택도검사와 진로상담, 군특기소개 및 군장비 체험 등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 이날 병무청 차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마친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소감과 향후 병역이행에 대한 계획 등을 청취하였다.
- 한 참가자는 “베트남에서 자라 병역제도가 어렵고 낯설게 느껴졌는데 직접 검사를 받아보니 절차를 이해할 수 있었고 막연했던 병역의무에 대한 부담감도 덜었다”라고 말했다.
- 또 다른 참가자는 “한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직접 경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 군 복무도 잘 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오후에는 참가자 전원이 함께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병무기록전시관 견학을 통해 대한민국 병역제도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이어 제37보병사단을 방문하여 군부대 시설 등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 김용무 병무청 차장은 “올해 베트남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 중인 「재외국민 병역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재외국민이 병역이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정책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끝.

담당 부서	입영동원국 국외자원관리과	책임자	과 장	석홍길 (042-481-2912)
		담당자	사무관	홍정화 (042-481-2954)